

# 광주봉사단, 3년 만에 캄보디아 의료 봉사...주민들 '환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9주년 아시아희망나무·조선대병원 등 참여 캄프스퓨서 이들간 320여 명 진료 광주시의회·시청 직원들도 봉사활동

광주시와 민간단체인 (사)아시아 희망나무, 광주일보사가 나서 지난 2014년 설립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올해로 개원 9주년을 맞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수년 만에 70여 명의 광주 시민들로 구성된 대규모 봉사단이 캄보디아 캄프스퓨(州)의 광주진료소를 찾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지 봉사가 어려웠던 만큼 70여 명의 많은 봉사단이 찾은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광주 봉사단을 맞는 현지 주민들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웃음이 가득했다.

한국 의료진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매일 150여 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 광주진료소 앞을 북새통을 이뤘고, 주민들은 노인부터 젖먹이 동생을 두 손으로 겨안은 6~7세 기량의 소년까지 다양했다.

이미 캄프스퓨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광주진료소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진료소 인근 마을부터 열거는 3~4 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해 방

문한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의료진들과 봉사단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 차량으로 30여 분 떨어진 마을 교회에서 이동진료소도 운영했다.

이번 봉사단장은 최동석 전 광주시의사회장이 맡았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대표 정승욱) 임원과 회원을 비롯한 조선대병원, 광주바보병원, 도담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기관과 남구가족센터·광주골든로타리클럽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광주시의회 정무장 의장 등 시의원 10명이 동참했고, 광주시에서는 차승세 정무특보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까지 참석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의원들과 시청 직원들은 이를 동안 광주진료소 부설 문화센터의 벽화작업과 마을 방역활동 등을 펼쳤으며, 문화센터 앞 마당에 망고나무 20그루를 심기도 했다.

최고 인기는 의료봉사활동이었다. 3년 만에 광주의 의료진들이 참석한 만큼 진료과목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은 김경중 원장을 필두로 내과·정형외과 교수, 간호사 등 10여 명의 의료진들이 참여해 현지 환자들을 진료·치료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인 서정성·박정현 아이안과 원장은 안과를, 정현경 도담청소년과 원장은 소아과를, 광주병원 김상훈 원장은 내과 진료를 맡았다.

이 가운데 서정성 원장은 백내장을 심하게 앓고 있는 현지 주민 15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줬다. 환자들은 수술 다음날 시력을 되찾자 광주 의료진을 찾아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봉사 기간 중 광주 의료진들에게 진료·치료를 받은 환자는 32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현지 10대 청소년들도 손을 거두고 나섰다. 진료소 주변 쓰레기 치우기부터 봉사단들의 든든한 보조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일부 청소년들은 더듬거리기 했지만, 한국어도 곧잘 했다. 아뎬(17)양은 "8살 때 광주 진료소가 문을 열었는데, 그 때부터 진료도 받고, 최근에는 희망나무에서 장학금도 받았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국어도 배우고,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 캄프스퓨(州)에 동지들인 광주 진료소는 이제 현지 주민들에게 이웃이자 'K-컬처'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아시아희망나무 봉사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이래 45회째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혹이 잠정 중단된 광주 부설 문화센터 및 게스트하우스가 완공되면, 현지를 찾는 광주지역 자원봉사 활동가들에게 봉사활동의 거점 및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캄보디아 캄프스퓨 최원일 기자 cki@



지난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캄프스퓨주에 있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앞 광장에서 개원 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진료를 받으려는 현지 주민 150여명과 (사)아시아희망나무 임원과 회원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조선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 전남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온라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 참여하세요

치어리딩·엔딩요정 두 가지 도민·선수 등 각계각층 참여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응원 챌린지가 시작됐다.

전라남도는 양대 체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붐업(Boom up) 조성을 위한 '쇼츠 영상(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오는 13일부터 릴레이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회 전날인 10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체전 응원가에 맞춰 치어리더와 함께 응원 안무를 추는 치어리딩 챌린지와 선수들이 각종 경기 플레이를 한 후 엔딩포즈를 취하는

엔딩요정 챌린지 두 가지로 제작했다.

현재까지 목포시민,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보성군 공무원, 나주시 사이클팀, 김주하 인하대 육상선수, 충남 김동희 복싱선수 등 전남도민과 선수 등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번 제작된 챌린지를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 인스타그램, 전국체전 공식 누리집(https://jeonnamsports.or.kr) 등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송출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위해 전국체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신성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전국체전 릴레이 챌린지가 대회 관심도 제고와 성공 개최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 결정

올해보다 6.95% ↑ ...물가수준 고려 '광주형 표준모델' 적용

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930원보다 830원(6.95%) 오른 1만 2760원으로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 6840원으로, 올해보다 17만3470원 증가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지역 내 임금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권노갑, 93세에 영문학 박사 도전...“전 세계 DJ 업적 알리겠다”

DJ 정치철학 영문 논문 목표

DJ의 최측근이자 야권 원로인 권노갑(사진)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93세에, 전국 최고령 박사 학위에 도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2023년 후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에 최근 입학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5일 첫 수업을 들었다.

이번 박사 학위 도전은 2013년 '존.F.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 연구'로 국내 최고령 석사 학위를 받

은 지 10년 만이다. 이번 박사과정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과 업적을 주제로 영문으로 논문을 쓰자는 목표이다.

권 이사장은 "배우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한 공부인 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사상, 대통령으로서 이룬 업적을 총망라한 논문을 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을 40년 넘게 보좌한 DJ 동료동계 마땅으로 불린다.

1930년 2월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49년 목포상



영어영문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모로코 120년만의 강진...사망자 2000명 넘어서

강진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모로코는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흔치 않은 지역으로 지적된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1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강진 대비가 소홀해 피해를 키웠다고 영국 BBC 방송,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11분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북위 31.11도, 서경 8.44도로 오우카이메데네 인근 아틀라스산맥 지역이다.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

쪽 약 71km 지점으로 이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0km 이내에 1900년 이후 진도 6.0 이상의 지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BBC는 전했다.

모로코 북부 도시 카사블랑카의 건축가 야나스 아마지르는 "이 나라의 건축물 상태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사망자 규모는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마라케시 남부 알하우즈 지역의 경우 건축가를 고용할만한 형편이 못 되는 주민들이 저수련 석공들의 도움으로 집을 짓곤 하는 탓에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적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 뭏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뭏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ex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 1588-2504 / www.ex.co.kr

광산구 공고 제2023-1878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동광주-광산)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동광주-광산) 확장공사
  - 위치 : (시점)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종점)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77)
  - 사업기간 : 2023 ~ 2029년
  - 사업내용 : 연장 11.2km, 폭원 30.6~38.9m(4 ~ 6-8차로 확장)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기존 4차로 → 6-8차로 확장)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명면도, 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2023. 9. 11. ~ 2023. 9. 26(명일 오전 9:00 ~ 오후 6:00)
  -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4층) ☎062-960-8553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소중한 통행로 더 좋은 길로 이어집니다